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공영일
주간 이선우
편집장 김중석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058호 〈주간〉 1994년 11월 28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서울 배정기 수원 김상일 제27대 총학생장 당선

서울…6백31표차 수원…5백21표차

95학년도 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 서울캠퍼스는 배정기 후보가, 수원캠퍼스는 김상일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서울캠퍼스】서울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에 배정기(신방 3) 후보가, 부총학생회장에 최원(한의본 1)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개표결과 배정기, 최원 후보가 2천8백23표를 얻어 2천1백92표를 얻은 박동재(신방 3), 이상훈(사학 3) 후보를 6백31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배정기군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학우들의 눈빛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생동하는 창조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9대 총여학생회는 이선희(수학 3), 박현희(사학 3)양이 단독 출마하여 찬성 1천6백85명, 반대 2백13명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유권자 8천1백91명 중 5천1백71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6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작년의 66%보다 더 낮은 참여율이다. 단대별로 살펴보면, 사범대등의 한두개 과로 이루어진 단대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특히 4대 의학계열학과는 모두 80%가 훨씬 넘는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유권자가 제일 많은 정경대와 문리대는 무표율 50%를 간신히 넘었다.

또한 사범대, 가정대, 한의대, 치대, 약대는 배정기 후보쪽에, 의대, 체대, 유대는 박동재 후보쪽에 몰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캠퍼스】수원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에 김상일(전산 3)군, 부총학생회장에 신영호(물리 3)군이 당선되었다.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산업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개표에서 2천6백22표를 얻은 김상일(전산 3), 신영호(물리 3) 후보가 2천1백1표를 얻은 한수일(산공 2), 김형찬(유전 4)군을 제치고 5백21표차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75.2%였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상일군은 "선거기간 중 표현성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오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제 6대 총여학생회 개표결과 단독 입후보했던 정 김정아(도예 4), 부 박상건(체육 2)양이 총유권자 1천6백75명 중 1천3백1명(투표율 77.7%)이 투표한 결과 찬성 1천90표(반대 1백92표)를 얻어 83.8%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또한 제3대 종예미역학생회장 개표결과 최정명(경영 4)군이 총유권자 1천7백23명중 1천3백33명(투표율 77.3%)이 투표해 찬성 1천98표(반대 2백21표)를 얻어 82.4%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고황논집 논문모집

대학원 총학생회 고황논집편집위원회는 고황논집 제15집에 실릴 논문을 모집한다.

본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이수자나 수료자는 오는 2일까지 고황논집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논문제출 신청서이다.

그림뉴스 PC사용, 워드기능에 편중

본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PC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6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71.1%가 워드기능에 편중되어 있어, 멀티미디어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컴퓨터의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부〉

계열화반대 단식농성

'학과통폐합 철회를 위한 사회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외대 민주광장에서 학과 계열화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공대위장 오인환(회계 4), 임종인(무역 4)군은 지난달 발표된 경영, 무역, 회계학과의 경영계열화 조치에 반발, 서명운동 및 리본달기, 항의 방문 등 학교측에 즉각적인 계열화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단식농성 4일째인 지난 24일 공대위는 유인물을 통해 '학과계열화는 현재 우리학교 실정에 맞지 않으며 실시한다 하더라도 전공교수 확보, 공간분배, 대학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한 계열화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학과 공대위장 오인환군은 "학교측이 지금이라도 교수, 학생공동위원회 구성에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과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당장이라도 단식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학교측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연구처 주관 최우수논문상에 김갑진교수

'94우수연구 최우수논문상에 섬유공학과 김갑진 교수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수원연구처에서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연구논문을 국제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제정한 이 최우수논문상에 선정된 김교수의 논문은 '외부전장의 세기가 VDF/TrFE공중합체의 퀴리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광분석연구'이다.

수상자인 김교수는 "앞으로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자극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학교측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수의 이 논문은 지난 4월 한국과학기술협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졸업식 단대별로 진행

학적과는 지금까지 노천극장에서 합동으로 진행하던 학사학위수여식을 단대별로 거행하고 유명무실했던 후기학위수여식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식은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루게 된다.

재학생 예비수강신청 실시

교과과정 개편작업 일단락을 의미

재학생 예비수강신청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어오던 교과과정 개편작업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수강신청은 이글 통해 개설과목을 확정하게 되므로 사립상 교과과정개편의 마지막 작업이 된다. 현재 교과과정개편 작업은 각 학과별로 진행돼 오던 전공과정은 완료되었고 교양과정은 재학생의 정과조치에 관한 부분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현재 교양과정으로 확정된 교과목은 교과특위에서 제시한 31개 과목을 포함하여 총1백95개과목이다. 이중 내년에 설계로 개설되는 과목은 이번 예비수강신청에서 30명 이상의 지원을 받는 과목만 해당된다.

수강신청은 정경대 전산실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그 전에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교무처는 이번주 안으로 교과과정편성안내책자를 각 학과사무실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교무처는 예비수강신청을 통해 개설과목 편만 아니라 과목별 교·강사, 교과목별 수강인원, 강의실 등을 편성하므로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수강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정원보다 초과할 경우 예비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으로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낙종씨 대학원 총학생장에 당선

"대학원 위상정립에 힘쓸터"

제10대 대학원총학생회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에 김낙종(경제 석사 1기)씨, 부총학생회장에 최충련(기계 석사 2기)씨가 당선되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 대학원총학생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개표결과 찬성 6백1명, 반대 91명, 무효 4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낙종씨는 ▲대학원생들의 생활속에 부리 내리는 학생회 ▲학내 제 민주단체와 유대하여 대학원학생회의 위상정립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 최대한 보장을 내년 대학원총학생회의 활동 기조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15일까지 후보자 등록마감 공고를 냈으나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17일까지 등록기간을 연기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다.

학교홍보차 시내고교 방문

본교직원, 우수신입생 유치위해

우리학교 교직원들은 28일부터 12월2일까지 서울고, 정기고, 휘문고 등 시중시내 50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입시홍보는 교직원 2명이 한 조가 되어 입선 교사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전반적인 학교현황, 수원캠퍼스 영동·영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 제2의료원 건립 및 치병원 개원, 장학제도, 학교평가제에서의 실적, 계약교수제,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교무처는 달력 20부,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50부, 기념품(필통)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문한 고등학교에 전달하게 된다.

교시탑

취직학원이 아닌 교육의 장

▼96년 교육시장 개방으로 앞으로의 대학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제 자체정비를 시작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학교 역시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내년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앞두고 대학발전의 채무를 짊어진 대학재단과 직원, 교수, 학생들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측과 학생들의 의견이 접종되기란 쉬운 일이 아닌 듯 하다.

▼현재 우리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도서관, 기초연구실 신축과 독립된 의과대학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학교 의대는 단독건물로 존재하는 타대학 의대와 달리 다섯개의 단대와 한건물안에 있을 뿐아니라 전국 32개 의대중에서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다고 한다. 학교측은 1층 공동실험실 공사로 인해 부족한 학생자치실을 9층 도서관을 없앤 자리에 이전시키기로 학생측과 합의했는데도 아직 9층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학평가인정제에 대비한 교수연구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은 공간이 부족할 경우 휴게실, 동아리실 등의 학생자치공간을 없앨 계획이며, 96년 의과대학평가제의 평가기준의 하나인 도서관은 공간이 부족할 경우 형식상 독서실 정도로 신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측이 이런 요구들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교자 노력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학이란 자리에 박혀 있는 '못'과 같은 정지된 인간이 아닌, '망치'와 같은 창조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학의 미래는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과 뜻을 모아 그것을 엄마만큼 지혜롭게 펼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최복영 기자〉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인사기록부에 학력난이 없다?

학력 능력

학벌,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자격요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존중의 경영이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학력의 벽"

사원들의 불신과 의심
인간 존중의 경영이 이 인사개발위원회를 통해 전파되고,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많은 성후를 발견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사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을 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응답자가 대부분인 기능직 사원들의 반응을 보고는 한으로 안타깝을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현장과 가장 가까우 사람들이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영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과 기능직
"인간 존중의 경영요? 우리가 아무리 해서 바야 뭐, 별수 있습니까? 기능직 사원으로 사직해서 기능직 사원으로 살는 데데 ……. 우리회사 인재개발 같은 얘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뭐 월급이나 좀 더 주고, 복지에 더 신경 써 주면 그게 바로 인간 존중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그들의 진의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단순 엄청나게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평균 5년 근속수가 많을 경우 이제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차는 거의 없어졌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우리서보다 나으면 나았지 뒤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능직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물어 보면, '나이도 있고, 자식도 크고 하니 관리자가 되어 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게 다들의 솔직한 얘기이다.

편견은 깨부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인사담당자들은 해오면서 바위처럼 굳어진 몇 개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나? 대학을 나와야지."
"명문대학 중심의 비명문대학 출신보다는 뭐가 나아도 낫다."
"여사원들이 일만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티이스다 처고 치 칠칠맞아서 잘하면 되지……",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상식들은 깨부수어 깨부수어야 한다.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면 얼마든지 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될 수 있고, 여사원도 평가를 통해 대외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역량이 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해외 근무를 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력, 학벌없는 기업
인간의 우열의 기에서는 인사고료에 학벌란이 없다. 사장이나 경영자들이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기 이전에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선입관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나 역시 사원들에게 그들의 학벌, 학력,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그리고 자격 요건에 따라 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 존중의 경영이며, 이런 풍토에서 신바람이 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자원국프로야구단 CHAMPIONS 럭키금성